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91 호

2024년 6월 19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Monthly Insights 6 월호 요약
2. 2024 TGE 프로그램 ROUND 5 참여 기업 모집 안내(~7/5)
3. UNGC-NBIM 기업 청렴성 포럼(5/17) 결과 공유

■ 본부 소식

1. 유엔 사무총장, UNGC 이사회 신규 이사 임명
2. 지속가능한 공급업체 및 중소기업 프로그램 런칭
3.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고마케팅경영자(CMO) 씽크랩' 런칭

■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회원사 ESG 우수사례] HD 현대인프라코어

■ UNGC & 회원사 뉴스

1. 롯데·LG·한화·LX 등 국내 주요 그룹 계열사, 잇따른 UNGC 가입으로 ESG 경영 가속화
2. 세아상역, 세계 최대 글로벌 이니셔티브 'UNGC' 가입..."지속가능경영 강화"
3. "롯데글로벌로지스, ESG 국제협약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4. 경남개발공사, 인권 이니셔티브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5. SK하이닉스, 소부장 협력사와 온실가스 감축 공동 선언

■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로고 사용정책
4.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Monthly Insights 6 월호: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VOLUME 45 | June 2024

웹에서 보기

Monthly Insights



■ 목 차 ■

1. UNGC-NBIM 기업 청렴성 포럼 하이라이트 및 결과 공유
2. 전문가 인사이트 : ACLP(Anti Corruption Law Program) - 'ESG와 반부패의 연관성'
3. ESG 최신 동향
 - 저탄소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의 6가지 모범 행동
 - FORBES, '과연 기업들은 DEI로부터 조용히 벗어나고(QUIET QUITTING) 있는가?'
4. 한국협회 소식 | 본부 소식
5.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이번 먼슬리 인사이트를 통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NBIM)이 함께 개최한 'UNGC-NBIM 기업 청렴성 포럼'의 핵심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100여 명의 기업 담당자를 비롯한 국내외 지속가능성 및 거버넌스 이슈 전문가, 투자자, 평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ESG 시대의 반부패 아젠다를 살펴보고 기업 거버넌스 정책과 컴플라이언스 문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채로운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특별 세션 1] ESG 공시와 윤리경영



첫 번째 세션으로 진행된 'ESG 공시와 윤리경영'에서는 글로벌 및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과 기업의 대응 방안 등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 투자자, 기준원 등 공시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해 다양한 시각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흐름과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세션은 매튜 제나시(Matthew Genasci)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 투자 스튜어드십 수석 매니저의 발표 '지속가능성 공시와 비즈니스 윤리'를 시작으로, 이윤희 지속가능성기준 위원회 상임위원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동향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경훈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의 'ESG 공시와 윤리경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형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앞선 발표자들과 함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및 윤리경영 관련 주제로 패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본문에서는 ▲ [특별 세션 1] ESG 공시와 윤리경영, ▲ [특별 세션 2] ESG 공시와 윤리경영, ▲ [토크콘서트] 성숙한 컴플라이언스 문화 형성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다양한 세션과 토크콘서트 중점 내용을 요약하여 기업 청렴성과 좋은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 문화 확산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Anti Corruption Law Program (ACLP) 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 기업 법률 센터, 국제 투명성 기구(TI), 밴쿠버 반부패 협회 (VACI)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뇌물 수수, 부패 및 비윤리적 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ACLP는 매년 기업 반부패에 대한 공공 교육을 목적으로 웨비나를 진행하며, 'ESG와 반부패의 연관성'을 주제로 진행된 웨비나를 요약해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에이미 산두 (Ameer Sandhu)

| Transparency International Canada 이사
* 매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는 반부패 분야 글로벌 NGO



크리스티 스티븐슨 (Christie Stephenson)

| UBC Business Centre 기업 윤리 센터 사무총장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적 관행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는 교육기관



샤론 싱 (Sharon Singh)

| Bennett Jones LLP ESG 파트너
* 기업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 토포

다음으로, <전문가 인사이트>에서는 Transparency International Canada 이사 에이미 산두 (Ameer Sandhu), UBC Business Centre 기업 윤리 센터 사무총장 크리스티 스티븐슨 (Christie Stephenson)과 Bennett Jones LLP ESG 파트너 샤론 싱 (Sharon Singh)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Anti Corruption Law Program (ACLP)의 웨비나를 통해 ESG 와 반부패의 연관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ESG 최신 동향



저탄소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의
6가지 모범 행동

[자세히 보기](#)



FORBES, '과연 기업들은 DEI로부터 조용히 벗어나고(QUIET QUITTING) 있는가?'

[자세히 보기](#)

<ESG 최신 동향>에서는, 저탄소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의 6 가지 모범 행동을 분석해보고, 포브스의 기사인 '과연 기업들은 DEI로부터 조용히 벗어나고(QUIET QUITTING) 있는가'를 통해 DEI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 10년 뒤 기업 변신 이끌 4가지 ESG 트렌드...미래학자 버나드 마 예측

○ '다가온 미래' 등 저술한 세계적인 미래학자 버나드 마는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길을 모색하는 기업이 향후 10년 동안 비즈니스 세계를 형성할 핵심 트렌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재생 혁명 ▲이사회 회의실의 중심이 될 ESG ▲자동화된 사회 ▲지정학적으로 확장되는 ESG 4대 주제를 중심으로 10년 뒤 ESG 트렌드에 대해 예상했다. 또한 그는 곧 재생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며 기업이 단순히 피해를 줄이려고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생태계를 재건하고 복원하는 게 더 큰 이익임을 깨닫고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2035년까지 이사회 의제가 급변하면서 ESG 이슈는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기업의 이사회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구조로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끝으로, 그는 2035년이 되면 국제 무역 관계와 글로벌 힘의 역학 관계 전반에 ESG 요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끝으로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에서는, ▲중기부, 유럽 CBAM 대응 중소기업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 지원, ▲2038년 원전·신재생으로 국내 전기 70% 무탄소 생산한다, ▲밸류업 원년 ‘주총 쓸림’을 본 외국인의 일침…“아마 국민연금은 잠도 못 잘거다” 등 ESG 동향 관련 주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nthly Insights는 회원사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회원사 실무진들에게 발송됩니다. Monthly Insights 관련한 문의 및 제안사항은 gckorea@globalcompact.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조연경 과장, 직통번호: 070-4327-9767)

[자세히 보기](#)

2. 2024 TGE 프로그램 ROUND 5 참여 기업 모집 안내(~7/5)



**TARGET
GENDER
EQUALITY**





Target Gender Equality 프로그램

Target Gender Equality는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한 기업이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의 이행을 심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기 위한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2030년까지 여성의 완전한 참여 및 리더십과 관련하여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된 'SDG 5.5' 및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달성을 목표로 하는 'SDG 8.5'를 향한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Target Gender Equality는 성과 분석, 역량 강화 워크숍, 동료 학습을 통해 50개국 1,500개 이상의 기업이 성평등을 위한 기업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 및 성과 분석

- WEPs 성 격차 분석 등을 통한 객관적 평가 실행
- 평가 결과를 목표와 연계, 목표 도달 과정의 잠재적 장애 요인 파악



이해관계자와 대화의 장 형성

- 정부, 투자자,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포럼 등 진행
- 다자간 대화를 통해 성 불평등 장벽을 허물어, 기업 내 다양성과 포용성의 문화 조성



역량 강화

- 전문가 주도 워크숍과 동료 학습 기회 제공
- 기업 권장 사항을 포함, Action Plan을 통해 성평등 계획 및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지원



미디어 & 옹호(Advocacy)

- 글로벌 캠페인 및 이벤트를 통해 기업의 행동 촉구
- 기업 내 다양성 우수 사례 공유
- 여성 비즈니스 리더십 향상 지지 및 노력 전파

ROUND 5 프로그램 타임라인

Round 5 런칭 조찬 간담회	Aug	역량강화 워크숍 (2차)	Oct	Korea Leaders Summit 및 TGE 수료식
July	역량강화 워크숍 (1차)	Sep	역량강화 워크숍 (3차)	Nov

← 온디맨드 세션 수강 →



산다 오잠보 (Sanda Ojiambo)
UNGC 사무총장

“ 성 평등을 향한 여정에서, 모든 기업 의사결정자는 여성의 완전한 포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젠더 챔피언 (gender champion)의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회사, 시장 및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TargetGender Equality

TGE 역량 강화 모듈 구성

Target Gender Equality는 기업이 성별 균형을 이루고 성평등을 증진 시키기 위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기업 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다루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래 여섯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모듈은 영상(On-demand video), 과제, 현지 지역 및 글로벌 규모의 라이브 세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모듈 1** **기반 및 체계 Foundations & Frameworks**

 - 성별 격차와 성평등에 대한 기업 사례를 알아보고
 - 국내의 현재 성평등 추세와 기업 현황을 파악합니다.
- 모듈 2** **성과 분석 Performance Analysis**

 - 회사의 현재 성 평등 격차와 발전 기회를 알아보며 향후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 성별에 따른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 모듈 3** **정책 및 이행 Policies & Practices**

 - 젠더 관점을 적용하여 정책을 수립해보고, 그 과정 전반에 걸쳐 편견을 없애고,
 - 성 평등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해합니다.
- 모듈 4** **목표 설정 Setting Targets**

 - 성 평등 목적과 세부 목표를 설정해보고,
 - 기업내 전사적으로 적용하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 모듈 5** **성과 추적 Tacking Progress**

 - 성평등 성과를 추적하기 위한 핵심성과지표(KPI)를 살펴보고,
 - 성과에 대한 진행사항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전반적인 성평등 전략에 대해 소통합니다.
- 모듈 6** **대외 소통 Showcasing**

 - 각 기업의 성평등 목표를 발표 및 공유하고,
 - '세계 여성의 날' 등 의미있는 활동을 고려하고, 대외적으로 소통합니다.

자세히 보기

참가 신청 바로가기

3. UNGC-NBIM 기업 청렴성 포럼(5/17) 결과 공유

□ 일시: 2024년 5월 17일(금) 09:00 - 17:00

□ 장소: 더 플라자 호텔 서울, 다이아몬드홀(22층)

□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NBIM)

□ 주요 내용: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NBIM)과 함께 '기업 청렴성 포럼'을 5월 17일(금) 더 플라자 호텔 서울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본 행사에는 약 80여 개의 기업/기관에서 100여 명의 담당자를 비롯한 국내외 지속가능성 및 거버넌스 이슈 전문가, 투자자, 평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ESG 시대의 반부패 아젠다를 살펴보고 기업 거버넌스 정책과 컴플라이언스 문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채로운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 개회사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행사에 참석한 기업 실무진들을 환영하며, 포럼을 공동 주최하게 된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과 모든 연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와 이해관계자의 신뢰, 투자 유치를 위해서 기업이 책임성과 투명성, 우수한 거버넌스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민간부문의 청렴성과 반부패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UNGC 도 올해 변혁적 거버넌스 기업 툰킷을 발간하여 기업이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비즈니스 관행을 발전시키고, 유익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이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한국 시장에 기업 청렴성과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환영의 인사를 전한 카린 스미스 이헤나초(Carine Smith Ihenacho)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 최고 거버넌스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는 NBIM 이 한국의 투자자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2001년부터 513 개의 한국 기업에 190 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온 만큼 한국 시장과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우수한 기업 거버넌스와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춘 기업은 보다 나은 성과와 낮은 리스크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며, 포럼의 주제인 기업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 공시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모범사례를 듣고 싶다고 하며, 많은 사례 공유와 소통이 기업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 문화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기조연설



반기문 제 8 대 유엔 사무총장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은 ‘SDGs 달성을 위한 기업 청렴성’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반부패의 중요성과 기업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매년 전세계 GDP의 5%에 해당하는 부패 비용(약 105 조 달러)이 발생한다는 세계은행의 통계를 인용하며, 부패 근절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더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 번째 원칙인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가 2003년 채택된 유엔 반부패협약에 기반한다며, 유엔글로벌콤팩트가 기업의 부패 척결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와 공급망에서의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반부패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고, 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의 공동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부패 및 청렴한 사회를 위한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을 독려하며 기조 연설을 마쳤습니다.

3. [특별세션 1] ESG 공시와 윤리경영



첫 순서로 매튜 제나시(Matthew Genasci)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 투자 스튜어드십 수석 매니저가 “지속가능성 공시와 비즈니스 윤리”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NBIM은 현재 전 세계 70개국 9,228개 기업에 투자 중이고,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리스크 대응 방식을 꾸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히며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NBIM의 투자 관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NBIM은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해서 ▲명확한 반부패 정책 수립, ▲정책 및 절차의 소통, ▲적절한 이행 보장, ▲행동 강령 및 계약 의무, ▲지속적인 실사 수행, ▲효과적인 준법 기능, ▲적절한 교육 제공 등을 이행할 것을 기대하고, ▲반부패 정책 및 절차, ▲독립적 외부 검증 여부, ▲반부패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 방법, ▲정책 입안자 및 규제 당국과의 건설적 참여 내용 등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NBIM은 기업이 대정부 활동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책임 있고 투명하게 참여하여 윤리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고서 및 지침을 발간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이웅희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상임위원이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동향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EU, 미국, 일본 등 국가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적용대상, ▲보고연도, ▲기간범위, ▲Scope 3 요구 여부 등을 소개하며,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ISSB)을 시작점으로 다른 공시 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하였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목적은 국제 정합성과 국내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해외 주요국가의 규제 대상이 되는 국내 기업들의 이중 공시 부담 최소화, ▲국내 기업의 공시 역량과 준비 상황 고려를 통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갖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경훈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 “ESG 공시와 윤리경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경훈 변호사는 2023 Trace bribery Risk Matrix를 통해 노르웨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국가이고 우리나라도 19번째에 위치하여 과거보다 부패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ESG 공시를 통해 기업의 반부패 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를 통해 시장에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과거 가격 담합이나 임직원의 뇌물 공여 등의 사례를 통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관련 시사점을 설명했습니다.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계되었는지(Design), ▲충분한 지원과 권한이 부여되었는지(Resource & Empower), ▲실질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Work in Practice) 점검하고, 이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형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앞서 발표한 연사들과 함께 ▲투자 기업의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다른 부서와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협력 촉진 방안, ▲ESG 공시의 신뢰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4. [특별세션 2] 기업 거버넌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의 최근 동향” 발표를 통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립, 이행, 소통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ETF 개발 계획,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 배당소득세 경감 계획 등이 고려되고 있는 국내 동향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과제로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로의 근본적 변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대주주가 선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체제 구축, ▲위법행위에 대한 임원자격제한, ▲주주 존중 기업 경영 문화 확산 등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아마르 길(Amar Gill)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 사무총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업 거버넌스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아마르 길 사무총장은 아시아 전역에서 효과적인 기업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기구인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2 개 시장에 대한 기업 거버넌스 보고서 ‘CG Watch’를 소개하며, 좋은 기업 거버넌스를 위한 요소와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2023 CG Watch 결과 한국이 지난 조사보다 9위에서 8위로 한 계단 상승하였고, 투자자와 정부 및 공공 거버넌스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시민사회와 언론’ 및 ‘상장기업’ 항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원 대상 교육 제공, ▲독립적인 의사결정 환경 조성, ▲개인 투자자에 대한 관심, ▲외국어 공시 확대, ▲행동주의를 통한 의사결정, ▲주주가치 제고 등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이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국민연금이 바라보는 기업 거버넌스의 핵심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원종현 상근전문위원은 바람직한 기업 거버넌스의 핵심으로 ▲주주와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수렴할 수 있는 기업 이사진과 경영진의 자세, ▲기업가치 증진에 방해되는 요인들을 독립적인 입장에서 견제 및 감시할 수 있는 사외이사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와 관련하여 국민연금은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 선정,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 등 단계별 절차를 마련하고, 기업 경영에 대한 존중을 수탁자 책임의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역할을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바네사 한스(Vanessa Hans)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 민간부문 책임이 좌장을 맡아 기업 거버넌스를 주제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루어질 앞으로의 변화, ▲일본의 기업 거버넌스 순위 상승 요인과 한국에의 시사점, ▲주주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비금융 지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5. [토크콘서트] 성숙한 컴플라이언스 문화 형성



마지막 세션으로는 좌장인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의 진행으로 “성숙한 컴플라이언스 문화 형성”에 대한 토크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와 지멘스의 컴플라이언스 제도 및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금선 SK 하이닉스 부사장은 자사의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제도 중에서도 특히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팀별 토론 교육과 맞춤형 교육에 중점을 둔 기본-심화-조직/직군 3 단계의 임직원 윤리교육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라며, 이를 통한 긍정적인 성과와 임직원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박종근 한국지멘스 윤리경영실장은 지멘스가 진정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85 개의 반부패 프로젝트를 15년 이상 진행하며 공동 행동(Collective Action)을 확산하였고, ▲부패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기법 활용, ▲무관용 원칙 기반의 징계 제도 등을 통해 꾸준히 반부패를 위한 노력을 이행 중임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진 논의에서 마금선 부사장은 ▲해외사업장 및 판매/제조법인 대상 분기별 반부패 교육 실시, ▲본사와 동일한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문화와 윤리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회사 및 협력업체 대상 점검 및 개선 요청을 통해 해외사업장 구성원과 공급망에 컴플라이언스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박종근 윤리경영실장은 시장 자체에서 반부패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나 펀드 구성은 한 기업이 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경쟁기업 또는 협력업체와 반부패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공동 행동을 통해 반부패의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세션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국내 첨단기술 및 통신 부문 기업을 대상으로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의 반부패 워크숍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UNG-C-NBIM 기업 청렴성 포럼'은 기업, 투자자 등 국내외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기업의 청렴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전사적인 기업 컴플라이언스 문화 형성 방안에 대한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행사를 마쳤습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장한별 과장, 안일곤 과장(T. 070-4327-9768, 070-4327-5057 /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본부소식

1. 유엔 사무총장, UNGC 이사회 신규 이사 임명



지난 6 월 4 일,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예스퍼 브로딘(Jesper Brodin) 잉카 그룹(Ingka Group) 최고경영자를 UNGC 이사회의 신규 부의장에 임명했습니다. 브로딘 부의장은 솔란지 리베이로(Solange Ribeiro) 네오에네르기아(Neoenergia) 부회장과 함께 부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브로딘 부의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지속가능한 리테일 기업 중 한 곳인 IKEA의 CEO로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잉카 그룹은 브로딘의 리더십 하에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생산 및 유통, 순환 경제 이니셔티브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비즈니스의 핵심 전략으로 통합하려는 브로딘의 노력은 UNGC의 목표와 일치하며, 국제 사회에 귀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UNGC 이사회에 5 명의 신규 이사가 임명되었습니다.

노보네시스(Novonesis) CEO 에스테르 바이게(Ester Baiget), 소프트텍(Softtek) CEO 블랑카 트레비노(Blanca Trevino), 요하네스버그 증권거래소 CEO 레일라 푸리(Leila Fourie),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의 룩 트리앙글(Luc Triangle) 사무총장, 국제투명성기구의 프랑소와 발레리안(Francois Valerian) 회장은 3 년 임기, 크리스티나 산체스(Cristina Sanchez) UNGC 스페인 협회 사무총장은 2 년 임기의 신규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UNGC 사무총장은 "이사회 신규 이사 임명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추진을 위한 UNGC의 전 세계적인 노력이 다시 한번 드러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리더십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UNGC의 10대 원칙을 기업들이 채택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엔의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인 UNGC는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에 따른 비즈니스 운영과 전략 수립하고,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의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합니다.

한편 UNGC 이사회는 유엔이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위한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중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이사회는 UNGC에 지속적인 전략 및 정책 자문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이사회 이사는 UNGC의 사명을 발전시킬 의지와 능력을 갖춘 홍보 대사로서 무보수의 명예직에 기반한 개인 자격으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UNGC 이사회의 현 구성원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unglobalcompact.org/about/governance/board/members

자세히 보기

2. 지속가능한 공급업체 및 중소기업 프로그램 런칭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와 바베이도스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글로벌 공급망 포럼(바베이도스, 5.21-24)」에서 ‘지속가능한 공급업체 (Sustainable Supplier) 및 중소기업(SME)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교류 및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녹색전환을 위한 국내 이행 체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UNGC 사무총장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는 출범행사에서 "지속가능한 공급업체 및 중소기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들은, 기업 지속가능성 기준 및 새로운 규정에 맞춰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자금을 유치하고, 회복탄력성을 구축하며,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업 ESG 발자국의 2/3 는 공급업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향한 글로벌 여정에는 공급망이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중소기업은 전 세계 기업의 90%에 달하고, 총 고용의 50%를 담당하며, 신흥 경제국에서는 GDP 의 약 40%를 차지하므로, 중소기업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진전과 포용적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채택하고 녹색경제 내 기회를 포착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융 및 정보 접근 제한, 공급망 붕괴에 대한 취약성, 복잡한 규제 환경에서의 보고 요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도전은 소수민족 소유 기업 (Minority Owned

Enterprise)에게 더욱 큼니다. 이들은 자금조달에 대한 제한된 접근, 불충분한 신용 기록, 성별, 연령, 인종,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 인해 자금 조달 시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UNGC는 중소기업들이 기업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협력해 왔으며, 20,000여개 회원사 중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인도, 나이지리아, 케냐, 스페인에서 진행된 '성공적인 지속가능한 공급망 임팩트' 프로젝트를 통해 긴급한 지속가능성 도전과제에 대해 대기업 회원사와 공급업체 간 긴밀히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파일럿 프로젝트는 협력적인 교육 환경을 위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 및 금융 인센티브를 용이하게 하며, 공급업체가 UNGC의 10대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역량 및 틀을 갖추도록 지원했습니다.

산다 오잠보 UNGC 사무총장은 “우리는 중소기업이 어디서든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과 도구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최근 몇 년 동안 UNGC는 지역협회를 통해 개발도상국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했고, 아부자, 방콕, 파나마시티, 코펜하겐, 두바이에 다섯 개의 지역 허브를 설립했으며, 여기에 중소기업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인게이지먼트를 전담하는 담당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첨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는 중소기업 참가자와 공급업체로 구성된 커뮤니티인 SPARK입니다. 중소기업 참여사는 비즈니스 브랜딩을 통해 우선 공급업체가 되고, 참여사들과 함께 Scope 3 배출, 반부패, 성평등, 보고 및 규제 준수와 같은 긴급한 지속가능성 현안에 대해 학습하고 목표 지향적인 실행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UNGC 10대 원칙을 적용하고, 오늘날 이러한 시장흐름 속에서 공급망 연계 목표를 세우고, 공급망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3.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고마케팅경영자(CMO) 씽크랩' 런칭 발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최고마케팅경영자(Chief Marketing Officer, CMO) 씽크랩을 런칭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글로벌 마케팅 리더들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UNGC 는 지금까지 회원사의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 CEO),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Chief Sustainability Officer, CSO) 및 기타 경영진과 성공적으로 협력하여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촉진해왔으나 CMO 의 실질적인 참여는 미흡했습니다.

CMO 는 최고 경영진 내 영향력을 크게 넓힐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핵심 이해관계자의 가치 창출(value creation)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효과적인 지속가능성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UNGC 는 '진정한 성장을 위한 연구소(Institute for Real Growth, IRG)'와 협력하여 저명한 CMO 그룹을 모아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글로벌 마케팅 리더들의 과제, 기회 및 니즈에 대해 자문하고 포괄적인 로드맵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이 로드맵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긍정적 영향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CMO 에게 필요한 지식과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계획 설정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UNGC 사무총장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는 “CMO 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엄청난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하며, “비즈니스 리더이자 브랜드 관리 및 소통 책임자로서 관념을 형성하고 가치를 창출하며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로드맵 설계를 위해 CMO 씽크랩이 보유한 통찰력과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첨언했습니다.

CMO 씽크랩은 초청 대상자에 한해 참여 가능하지만, 씽크랩을 통해 도출된 통찰력과 전략은 궁극적으로 전세계 CMO 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요 성과들은 글로벌, 지역 및 로컬 차원에서 배포되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한 집단적 행동으로 발전 가능합니다.

엄격한 평가와 품질관리를 통해 CMO 씽크랩은 학습 효과를 확장하고, 모든 부문과 지역에서 CMO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UNGC CMO 씽크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회원사 ESG 우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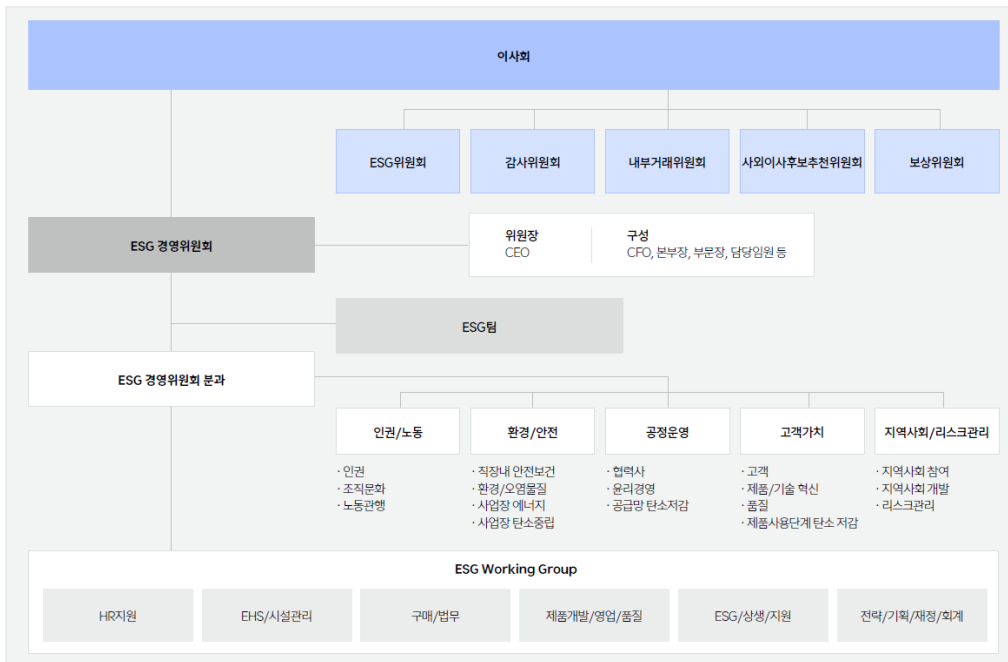


■ E(Environmental) ■ S(Social) □G(Governance)

1. 기업 소개

HD 현대인프라코어는 1937년 설립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건설기계, 엔진, 각종 어태치먼트와 유틸리티 장비 등 각 사업분야에서 독보적 위상을 구축한 한국 최고의 기계 기업입니다. 2021년 HD 현대건설기계부문으로 편입되었으며, 2023년 사명을 HD 현대인프라코어로 변경하였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영위하는 주요사업으로 건설기계사업과 엔진 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사업은 굴착기와 휠로더에서 굴절식 덤프트럭까지 아우르는 라인업을 갖추고 전 세계 각지에 생산, 판매 및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엔진 사업은 강화되고 있는 각종 환경규제를 만족하는 고품질, 고사양의 엔진들로 Full Line-Up을 갖추고 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경영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2. ESG Governance



ESG 위원회

2021년 이사회 산하의 ESG 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SG 위원회는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ESG 주요 분야 업무의 추진 및 ESG 공시 사항 심의 등 ESG 전략·정책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ESG 경영위원회

ESG 경영위원회는 연 3회 CEO 주관 하에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고 5개 분과(인권/노동, 환경, 공정운영, 고객가치, 지역사회) 이슈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한 회사의 중대성평가를 기반으로 ESG 주요 이슈를 선정하고, 회사의 위기와 기회를 검토하며, ESG 전략과제의 선정 및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ESG Working Group

ESG 경영위원회에서 ESG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운영 및 프로세스에 대한 승인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실무진으로 구성된 Working Group에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도출합니다.

3. ESG 경영전략

- **Sustainable Value Framework**

HD 현대인프라코어는 3가지 핵심 Sustainable Value Framework¹⁾로 이해관계자에게 건강한 환경, 기술, 역량을 제공하는 활동 'People',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품, 솔루션, 서비스를 혁신하는 활동 'Product/Solution/Service',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Value Chain 내 긍정적 영향을 증대시키는 활동 'Process'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ESG 전략과 6개의 중점 추진영역을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위원회는 매년 중점추진영역, 중대성 평가, 외부 ESG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ESG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ESG 위원회에 ESG 계획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ESG 전략과제는 총 12개로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결과를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1) Sustainable Value Framework: 재무와 비재무 성과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HD 현대인프라코어의 가치와 UN SDGs의 가치를 기반으로, 외부 주요지표, 중대성평가 결과 및 내부 참여를 통해 3개 영역, 12개 전략으로 구성된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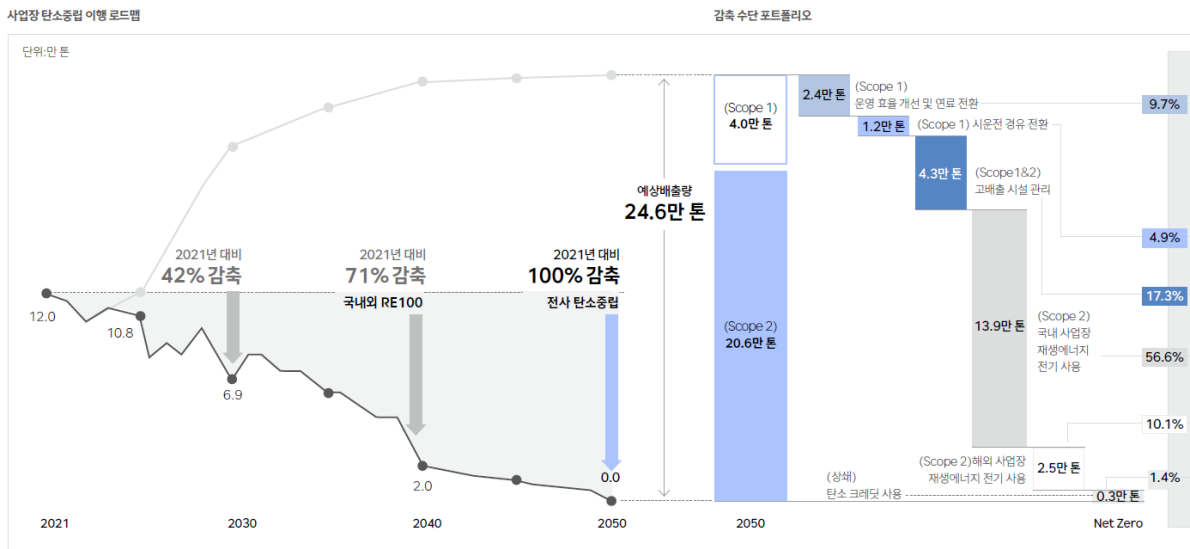
4. 기후변화대응

- **2050 탄소중립 및 2040 RE100**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1.5°C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021년 대비 2030년까지 42%, 2040년까지 71%의 탄소배출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도입과 배출시설 관리 및 개선, 탄소배출 상쇄사업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PPA를 통해 군산공장에 2MW 규모의 태양광 전력공급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에는 5.5MWp 급 PPA 계약을 추가 체결하면서 총 10.5MWp에 달하는 공급계약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공급계약물량은 군산공장 전력 사용량의 85% 수준으로 2024년말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장에 적용하여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장 태양광 자가발전을 통한 전력 소비를

위해 2028년까지 단계별 사내 태양광 Master Plan 을 수립하여 발전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23년에는 글로벌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하였고, 2040년 RE100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 기술 및 제품 개발**

글로벌 전 밸류체인의 탄소감축과 친환경제품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동화·수소 동력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친환경 R&D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친환경 동력전환, 전자유압 및 에너지 회생기술 기반의 연비효율개선 등 친환경 기술과 제품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 사용단계의 탄소배출을 저감할 계획입니다.



5.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정책 수립 및 리스크 평가

글로벌 사업장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복원에 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글로벌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에서는 생물다양성 정책의 거버넌스, 생물다양성 보호 원칙, 이행체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생태계 변화를 평가하고 리스크 분석 및 완화 계획 수립을 위해 TNFD 프레임워크의 리스크 및 기회요인 평가방법론인 LEAP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여 전사 리스크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글로벌 모든

생산사업장을 포함한 총 7 개 사업에서 생물다양성, 취약성 및 의존도·영향도를 고려하여 생물다양성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평가범위의 경우 사업장 인근지역·Upstream·Downstream 을 포함하였습니다.

- **Locate(비즈니스 활동범위 파악)**

글로벌 주요 사업장 경계로부터 반경 2km 인접지역, 반경 50km 완충공간으로 분석 진행

- **Evaluate(취약성 및 상호작용 평가)**

글로벌 생산공장이 위치한 7 개 사업장 및 인근지역의 자연식생 노출도, 생태계서비스 민감도 의거한 생물다양성 취약성 평가 진행과 의존도 및 영향도에 의거한 우선관리 영역을 식별

- **Assess(위험 및 기회 식별)**

‘생태계서비스 저하’, ‘시장-비시장 선호정도’에 따라 4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위험/기회평가에 적용

- **Prepare(대응 및 공시)**

생물다양성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생태계 의존도 리스크 및 영향 최소화를 위한 HD 현대인프라코어의 대응방안 수립

6. 안전보건 및 공급망

- **안전문화 구축사업**

2021 년부터 시작된 안전문화 구축사업은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안전 행동을 실천하는 습관과 분위기를 형성해 무결점 안전 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시작하였습니다. 안전문화 교육 실시, 안전 우수사례 공유, 안전문화 동영상 경진대회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문 컨설팅을 통해 안전의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향후 2030 년까지 로드맵을 수립하여 글로벌 탑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협력사 안전보건 컨설팅**

협력사에 대한 상생안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기술지원사업의 일환인 상생협력사업과 안전보건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매칭 지원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험성 평가기법 전수, 3 대 사고유형 및 8 대 위험요인 발굴개선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직접 지원합니다. 2023 년 5 개 협력사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2024 년 8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칭 지원 컨설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협력사에 대한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2024 년 3 월,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주관으로 개최된 ‘제 1 회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공급망 ESG 평가 실시**

공급망과 관련된 잠재적 ESG 리스크를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력사 ESG 평가지표를 수립하여 협력사들에 대한 자가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핵심 협력사를 포함한 141 개의 협력사들이 자가평가에

참여하였으며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 및 경영시스템 등의 5 가지 항목과 관련한 평가지표에 대해 온라인으로 응답하거나 증빙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자가평가에 참여한 141 개 협력사들 중 평가점수, 구매금액, HD 현대인프라코어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력사 27 곳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공급망 현장실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장실사 결과 전 영역에서 개선과제들이 식별되었으며, 핵심 개선과제들을 중심으로 과제별 실천 계획 등을 수립하고 실제 개선이 진행되도록 지원과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공급망 ESG 관리 로드맵에 따라 자가평가와 현장실사는 매년 확대하여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7. 지역사회 참여

• 생태계 보존 활동

HD 현대인프라코어는 2023 년부터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존을 주제로 #지구를위해용기내 라는 슬로건 하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하여 국립공원공단과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 생태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매년 1 억원씩 2027 년까지 5 억원을 기부할 예정이며, 생태 모니터링·생태통로 기능 강화 등 우이령길 보전 및 복원 작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또한 임직원들이 직접 나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종을 제거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 글로벌 봉사의 날 운영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전 세계 사업장이 보전 활동에 동참하는 ‘글로벌 봉사의 날’을 지정하였으며 2023 년 5 월 첫 글로벌 봉사의 날에는 전세계 임직원 1,400 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는 해양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 ‘반려 해변 정화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인천 무의도 하나개 해변, 군산 선유도 옥돌해변) 중국, 미국, 체코, 노르웨이 등의 글로벌 사업장도 같은 날 사업장 주변 및 숲 등을 돌아보며 환경 보호 및 정화 활동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회사는 매년 5 월 중 하루를 ‘글로벌 봉사의 날’로 지정해 생태계 복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HD 현대 1% 나눔재단 후원**

2020년부터 HD 현대 1% 나눔재단에 동참하여 1% 급여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 급여 나눔 활동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의 1%를 나눔재단에 후원하는 것으로 2023년에는 1354 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여 5.2 억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지역사회 지원, 소외계층 돌봄 지원, 사회복지 취약시설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됩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1. 롯데·LG·한화·LX 등 국내 주요 그룹 계열사, 잇따른 UNGC 가입으로 ESG 경영 가속화



- 주요 그룹 계열사, 삼성, SK, 현대, LG, 한화, 효성, LX, 포스코, 롯데를 비롯해 국민은행, 신한은행, 미래에셋 등 주요 금융사와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잇따라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고 있음.
-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과 책임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LX 인터내셔널과 한화비전, LG 유플러스,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28 개 기업이 가입했으며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중공업, 현대차증권, LX 판토스, SK 바이오팜 등 59 곳이 가입함.

아주경제

2. 세아상역, 세계 최대 글로벌 이니셔티브 'UNGC' 가입..."지속가능경영 강화"



- 글로벌세아 그룹의 계열사이며 세계 최대 의류제조 기업인 세아상역이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함.
- 세아상역은 보다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추구하기 위해 연합된 기업, NGO 및 정부 기관의 저명한 네트워크에 합류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전 세계 공급망과 지역 사회에 걸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음.

데일리안

3. 롯데글로벌로지스, ESG 국제협약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해 ESG 경영활동을 강화하고, UNGC의 10대 원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이를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UNGC 가입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고도화하고 투명한 ESG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함.

헤럴드경제

4. 경남개발공사,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 경남개발공사가 인권경영 추진력 강화를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했다고 밝힘.
- 경남개발공사 김권수 사장은 “이번 UNGC 가입을 통해 경남개발공사의 인권경영 체계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이루고 도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한 단계 더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전함.

메트로신문

5. SK 하이닉스, 소부장 협력사와 온실가스 감축 공동 선언



- 최근 SK 하이닉스가 소부장 협력사들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을 전개하며 세부 실천 방안을 도출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에코얼라이언스 워크숍'을 개최함.
- 이날 SK 하이닉스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하고, 에어리퀴드, 솔브레인 등 28 개 회원사는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감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한 개별 감축 목표를 발표하며 선언에 동참하면서, 회사간 협업으로 반도체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조선일보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5 월 16 일부터 6 월 18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2 개사입니다.

- DS 단석
- 마크로젠

2. CoP/CoE 제출회원

5 월 16 일부터 6 월 18 일까지 11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CoE (총 2 개)

- 컨선월드와이드한국
- 한국표준협회

CoP (총 9 개)

- KDB 산업은행
- (주)로이포스
- 강릉관광개발공사
- 국도화학주식회사
- 수협은행
- 여기어때컴퍼니
- 와이제이링크
- 한솔섬유
- 한전 KPS(주)

※ UNGC 회원사는 2024 년도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를 4 월 1 일부터 7 월 31 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원사 상태(status)가 “미보고(Non-communicating)”로 전환되며, 12 월 31 일 이내에 제출시 다시 “Active” 상태로 회복됩니다. 12 월 31 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25 년 1 월 1 일자로 “제명(Delisted)”되오니, 일정을 확인하시어 제출기한 내에 이행보고서(CoP)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회원은 기존 정책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내에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ed)”됩니다.

※ CoP/CoE 문의: 안성은 과장 (070-4327-9771)

3.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4. UNGC 한국협회 가입 안내

2007년 9월에 설립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다양한 심포지엄, 워크숍, 컨퍼런스 개최 및 기업 지속가능성/ESG 관련 연구·조사, 정책 제안, 네트워킹과 대화의 장 마련, ESG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하여 회원사의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이행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